

☆ 옥죽초밥 김장김치 ☆

11월 마지막 토요일아침!! 나는 7시부터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할머니 집으로 갔다.

왜냐하면 오늘은 2020년도 중에 가장 많이 기다렸던 "김장"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.

☆☆ 할머니집에 도착하니 작은이모도 있으셨고 할머니는 벌써 김장할 준비를 하고

계셨다. 그때 김장 준비하는 걸 보니 더욱더 김장하게 실감나게 느껴졌다.

나는 ^(하루) ~~가장~~ ^{가장} 마음에 빨리 서둘러 할머니 집안으로 들어갔다. 그러자

사촌동생이 나를 엄청 반겨주었다. 그리고 사촌동생과 놀고있다가 김치가 빨리

먹고 싶어서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갔더니...!! 마을사람들께서 도와주시고 계셨다.

☆☆ 마스크는 다 끼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. ^(하루) ~~가장~~ ^{가장} 빨리 엄마를 찾아 김치를

한입만 달라고 했다. 그런데 엄마가 엄청크게 잘라 주셔서 먹기 힘들었지만

그래도 너무나 맛있었다. 나도 "엄마 나도 해볼래" 라고 했더니 내년이나 더크면 하라고 ^(하루) ~~가장~~ ^{가장}

지금은 사촌동생도 놀아줘야 된다고 했다. 그래서 아쉬웠지만 어쩔수없이 다시 방으로

들어갔다. ^(하루) ~~가장~~ ^{가장} 놀고있으니 엄마가 들어와서 김장김치를 잘라주고 갔다. 다같이 먹고

☆☆ 나니 가족모두가 밖에서들어왔다. 다 끝났냐고 물어보니 다 끝났다고 했다. 나도 해보고

싶었는데 하지못해서 아쉬웠지만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좋았다. (끝) ☆ (할머니 김장김치 짱!!)